

# 꾸란의 나프스, 루흐, 아끌, 깔브에 대한 의미 연구

공 일 주 IL Joo Kong\*

- I. 서론
- II. 수피 무슬림의 마음
- III. 꾸란과 이슬람 철학에서 나프스와 루흐
- IV. 이슬람 철학자의 이성
- V. 결론

## I. 서론

아랍 국가에서 만난 무슬림들에게 ‘루흐’(ruh)가 뭐냐고 물으면 ‘나프스’(nafs)라고 하고 ‘루흐’의 의미가 뭐냐고 다시 물으면 ‘루흐’는 생명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슬림 지식층들에게 물어보면 루흐는 나프스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과 루흐와 나프스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1700만 아랍 기독교인들 중에는 인간의 구성요소가 몸, 영(루흐), 혼(나프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몸, 영 혼(나프스)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더구나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에는 루흐라는 어휘가 성령이란 어휘로 번역되어 있어서 도대체 루흐와 나프스는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오랫동안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사실 아랍 무슬림들의 꾸란과 주석서에는 알라(Allah)를 영(Spirit)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영어로 번역된 일부 꾸란 번역서에는 꾸란 26:193의 루흐가 지브릴 천사가 아닌 trustworthy Spirit라고 번역되어 있고 2:87의 루흐가 지브릴 천사가 아닌 Holy Spirit로 번역되어 있다.<sup>1)</sup>

\* Visiting professor, Cairo University

1) M.A.S, Abdel Haleem, *The Qur'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37, 11.

이처럼 루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든 무슬림들이 그들의 지식과 학문의 원천으로 여기는 아랍어 꾸란과 아랍 이슬람학자들의 연구에서는 루흐를 비롯한 나프스, 아끌, 깔브의 개념을 뭐라고 말하는가? 또 루흐와 나프스의 의미역(semantic field)을 꾸란과 순나 이외의 자료 즉, 아랍어 사전과 꾸란 어휘 사전 그리고 철학자와 변증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하는가? 게다가 오늘날 영어나 한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된 꾸란에서 루흐를 비롯한 일부 어휘들이 번역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가? 이런 연구 주제들을 중심으로 루흐, 나프스, 아끌, 깔브 등의 어휘들을 아랍 무슬림들의 저서와 학술 연구를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루흐와 나프스가 동일한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인가? 나프스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수피들은 형이상학적 실재로서 ‘마음’(qalb)을 강조했다. 수피들은 역사적으로 여러 발달과정을 거쳤고 늘 마음을 정화하는 일에 힘썼다. 그래서 수피의 웨이크(종단의 창단자)는 마음의 대가로 알려지곤 했다. 이슬람 초기의 수피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악을 멀리하면 알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꾸란에서 알라는 무슬림들에게 이성(Intellect)을 사용하라고 권면한다. 알라가 인간에게 이성을 주어서 이성이 교리에서 진리와 非진리를 구별하게 하고 행동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고 말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수피 무슬림들은 이성에 관심이 적었다. 수피들은 이성은 철학과 변증 신학에서 사용된다고 했다. 이슬람 역사를 통하여 아랍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슬람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나프스 나띠까’(nafs nātiqah, 사고하는 나프스)가 있다고 했다. 철학자 이븐 바자(Ibn Bajjah, 1138년)는 ‘사고하는 나프스(Reasonable Nafs)’를 ‘사고하는 능력’(Quwā nātiqah)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하는 능력’을 이론적인 능력(이론적인 이성)과 실천적인 능력(실천적인 이성)으로 나누고 이 둘을 이성(intellect)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꾸란의 나프스와 루흐의 개념은 물론 수피 무슬림의 깔브의 개념과 이슬람 철학자들의 이성(아끌)의 개념들도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아랍어 의미론에 근거하여 아랍어 사전과 꾸란 어휘 사전의 의미는 물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아랍어의 특징을 고려하고 아랍어 낱말 아래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수피들과 여타 무슬림들의 꾸란 해석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 II. 수피 무슬림의 마음

이슬람 세계에는 순니 무슬림과 시아 무슬림들이 있고 이들 중에 수피 무슬림들이 있다. 수피들은 마음이 알라를 갈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sup>2)</sup> 수피 무슬림들은 인간의 구성요소에는 나프스, 마음, 비밀 등 세 가지 수준으로 구별되었다.<sup>3)</sup> 수피 사전에서 마음(Qalb)은 루흐와 나프스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빛을 내는 본질’이라고 말하고 마음을 ‘사고하는 나프스’(나프스 나띠까, 인간의 나프스)라고 했다.<sup>4)</sup> 또 수피들은 알라가 마음을 통하여 인간을 볼 수 있도록 존재들의 핵심 속에 내려준 매우 비밀스런 곳이고 영원한 빛이라고 했다.<sup>5)</sup> 수피들에게 나프스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었다. 나프스를 진압하는 것이 수피 수행의 첫 단계였고 이 때 수피는 알라를 디크르(dhikr, 알라를 생각하며 알라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을 되뇌임) 했다. 디크르를 하면 마음을 강력하게 흔들려주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수피 무슬림들은 마음을 닦는 것을 알라를 디크르하는 것과 관련시켰다. 마으리파(신적 지식)는 많은 수피들의 중심적인 목표이었다. 마으리파(ma‘rifah)는 나프스를 정화하기 위하여 수피가 인내의 결과로 얻은 상태라고 했다.

꾸란에서 가슴(Qalb, 칼브)은 몸에 혈액 순환을 해주는 가슴이고 피를 깨끗하게 하여 모든 지체들로 내보낸다고 했다. 그런데 수피 무슬림들은 마음을 통하여 인간이 알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수피에게 마음(칼브)은 빛을 내는 본질이고 루흐와 나프스<sup>6)</sup>의 중간이었다. 아랍인들에게 가장 고전적인 사전 중의 하나 리산 알아랍(lisan al-Arab)에는 루흐의 의미를 생명을 주는 것, 꾸란, 지브릴 천사, 이싸(루흐 알꾸두스),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바람, 나프스라고 했다. 루흐는 이슬람 의학에서 마음에서 생기는 기체로부터 온다고 하고 생명의 힘과 느낌과 동작의 힘이라고 했다. 또 오늘날 아랍어 사전을 보면 나프스는 루흐, 혈액, 사람 전체 등의 의미를 갖는다.<sup>7)</sup>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는 꾸란의 여러 구절에 나

2) 공일주, 『이슬람의 수피즘과 수쿠크』 (서울: CLC, 2011), 5.

3) Hamid Tahir, *Ma‘ālim al-Tasawwuf al-Islāmi* (Cairo: Nahdah Misr, 2010), 99.

4) ‘Abd al-Razāq al-Kāshānī, *Mu‘jam Istilāhāt al-sūfiyyah* (Cairo: Dār al-manār, 1992), 162.

5) Anwar F. Abi Khuzam, *A Dictionary of Sufism Terminology* (Librairie Du Liban Publishers, 1993), 144.

6) 아랍어 루흐와 나프스는 각각 영(spirit)과 혼(soul)의 의미가 아니고 꾸란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아랍어 원음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오는 루흐와 나프스의 의미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수피들은 이성에 관심이 적었다. 수피들은 알라와 마음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수피들은 알라를 목상하는 중에 알라를 아는 것(마우리파)이 예배의 가장 숭고한 목표라고 한다. 수피들은 지옥이 두려워서 잔나(극락)에 가려고 알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를 사랑하여 알라 자신에게 예배한다고 했다. 수피 무슬림들에게 나프스 다음에 마음이 있고 마음 다음에 비밀(Sirr, 피조물에게는 숨겨져 있으나 진리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역)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꾸란에는 나프스 암마라, 나프스 라우와마, 나프스 무뜨마인나 등이 나오는데 이들은 나프스의 종류라기보다는 나프스의 속성들이다.<sup>8)</sup> 그리고 루흐가 몸을 떠나면 ‘죽음’이라고 했다. 나프스 중에서 몸의 성향으로 기울어진 나프스를 ‘나프스 암마라’라고 하고 마음의 빛으로 빛을 내는 나프스는 ‘나프스 무뜨마인나’이다.<sup>9)</sup> 나프스 암마라는 육체의 성향에 기울어진 나프스인데 감각적인 욕정과 즐거움에 맡긴 나프스라서 마음의 가장 낮은 영역을 차지하고 악의 거처이다. 다시 말하면 비난받는 부도덕과 나쁜 행동의 원산지이다. 나프스 라우와마는 타고난 인간적 특질과 신성 사이에 주저하는 나프스이다. 꾸란에 나오는 ‘나프스 라우와마’는 불순종을 반복적으로 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일을 계속하는 나프스이다. 그래서 이런 나프스가 지배되는 경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라우와마라는 말은 심한 비난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나프스 무뜨마인나는 마음의 빛으로 빛이 성취된 나프스인데 비난받을 성품에서 벗어나 칭찬받을 윤리로 바뀌어 마음(Qalb)의 방향으로 온전하게 향하는 나프스이다. 나프스 무뜨마인나는 알라가 기뻐하는 나프스이고 수피들이 지향하는 나프스이다.

수피들은 이처럼 나프스와 마음 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수피들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거울이 깨끗하면 알라의 이미지가 찾아오고 거울이 깨지면 알라의 이미지가 오지 않는다고 했다. 수피의 신적 지식은 철학자와 변증 신학자(무타칼리문)들이 이성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마음을 강조했다. 이슬람력 3세기에 이슬람 수피즘은 대부분이 이슬람법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몸의 행동과 대조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수피의 마우리파는 아끌(이성, 지력)과 상관 없이 마음과 관련되었다. 이성과 감각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음은 신이 현현하는 장소라고 여겨졌다. 이성에서 나온 학문(ilm)과 마음에서 나온

7) Yūsuf Mahmūd al-siddīqī, “al-nafs wa al-rūh,” *Mawsū‘ah al-Aqidah al-Isla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amiyyah), 1143.

8) Al-sayyid Sābiq, *al-‘Aqā’id al-Islamiyyah*, al-fath lil-‘ilām al-arabi(Cairo, 2009), 204.

9) 공일주, 『한국인과 소통을 위한 아랍 문화』 (서울: 세창출판사, 2012), 213.

마으리파(ma'rifah)를 서로 구분했다. 전자는 인간이 교육과 반복된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나 후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의 마음에게 답을 준다고 생각했다. 수피들은 이성과 마음과 나프스와 루흐 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이성(아끌): 이성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수피들은 이성(지력)에 관심이 덜했다.

2) 루흐: 신적 본질이 나타나는 곳으로서 수피들은 루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3) 나프스: 인간에게 몸의 욕망을 실현하게 한다.

4) 깔브(마음): 수피들은 깔브가 알라의 사랑과 알라를 알도록 기여한다고 믿는다. 마음은 나프스와 갈등관계를 갖는다.

수피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던 이슬람 변증 신학자들 그리고 마음보다는 겉모양을 중시한 이슬람 법학자들을 싫어했다. 수피들은 이슬람 법학자들이 예배의 걸(자히르<sup>10</sup>)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방법, 오른손을 왼손에 얹는 것 등에 관심을 두고 또 기도하면서 머릿속에는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마음과 속(바띤)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아흐 알바띤’이라고 불렀고 몸의 동작에만 관심이 있는 보통의 무슬림들과 구별하고자 했다. 바띤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에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수피가 아닌 무슬림들을 ‘아흐 알루숨’(형식만을 치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꾸란을 이해할 때 겉 뜻과 사실적인 의미에 관심을 두었고 수피는 의미의 바띤(속뜻)을 찾으려고 비유적인 의미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 Ⅲ. 꾸란과 이슬람 철학에서 나프스와 루흐

#### 1. 꾸란의 루흐와 나프스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충돌하고 다양한 주장들이 많으므로 철학, 변증 신학, 수피즘 그리고 꾸란과 순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연구는 과거 이슬람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현

10) 자히르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인간 이성에게 증거로 나타난 것이어서 이성과 증거로 깨닫는다. 바띤은 세상을 사물의 내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히르는 자히르 위에 아무 것도 없고 바띤은 바띤 없이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대 이슬람 학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일부 이슬람 교리학 책을 보면 인간은 몸과 루흐로 되어 있다<sup>11)</sup>고 한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인간은 몸과 나프스로 되어 있다고 해야 맞다. 그 이유는 꾸란이 루흐의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나프스는 꾸란에서 여러 의미로 등장한다. 사실 일반적인 개념에서 루흐와 나프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없고 무슬림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두 어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어휘는 다른데 둘이 한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꾸란에서 루흐는 알라만이 알 수 있다고 하여 인간이 루흐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루흐가 몸에 머물고 몸에 생명을 주고 루흐로 인하여 깨닫고 의식하고 사고하고 배우고 의지를 갖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한다. 그런데 루흐가 몸을 떠나면 생명을 잃는다. 이슬람에서 부활의 날에는 루흐가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슬람 초기 살라프(무함마드의 동료들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나프스와 루흐의 어휘들이 그 의미는 하나라고 했다. 꾸란에서 이 두 어휘는 미미한 차이를 가졌다. 그런데 무함마드 압둘 라힘은 꾸란은 루흐라는 단어를 생명이나 나프스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지브릴 천사의 의미로 쓰여 있다고 했다.<sup>12)</sup> 무슬림들끼리도 이처럼 꾸란의 루흐에 대한 정의를 달랐으나 오늘날에는 꾸란 학자들이 꾸란 해석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문맥에 따라 루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규정되었다. 첫째, 루흐는 나프스(nufus)들의 생명이다(꾸란 58:22). “그의 루흐로 그들을 강하게 해주었다”. 둘째, 루흐 민 알라는 이싸이다. 루흐 민후(꾸란 4:171)는 지브릴 천사의 입김으로 창조된 이싸를 가리킨다. 셋째, 루한(rūḥan)은 ‘숨겨진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의 명령으로 너에게 우리가 루흐(숨겨진 것)를 알려주었다”(꾸란 42:52). 넷째, 알루흐는 몸의 생명이다. “그들이 너에게 루흐(몸의 생명)에 대하여 묻는다. 말하라. 루흐는 주님의 영역이라고 해라. 너희들에게 약간의 지식만 주어졌다”(꾸란 17:85). 다섯째, 알루흐는 예언과 와히<sup>13)</sup>(알라가 지브릴 천사를 통하여 무함마드에게 전한 것)이다. “그의 명령으로 그의 루흐를 통하여 그의 천사들을 내려 보낸다(꾸란 16:2)”. 여섯째, 알루흐는 지브릴 천사이다.

11) Al-sayyid Sābiq, *op.cit.*, 195.

12) Muhammad Abd al-rahim Muhammad, “Al-rūḥ,” *Mawusū‘ah al-falsafah al-islā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588.

13) 와히는 숨겨진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방식은 말로, 글로, 손짓으로, 지시로 그리고 일함(마음 속의 생각)이 될 수 있다. 인간과 다른 존재 등급에 속하는 존재와의 접촉(점쟁이와 사탄, 예언자와 천사 등)을 와히라고 했다. 꾸란을 보면 와히 과정에서 접촉 상대는 한 쪽이 알라이고 다른 한 쪽은 무함마드이다. 알라 또는 천사와 인간 간의 소통의 채널이 와히이므로 알라가 지브릴 천사를 통하여 무함마드에게 전한 것이 와히이다.

“신실한 알루흐(알루흐 알아민, 지브릴 천사)가 그것을 내려주었다”(꾸란 26:193). 일곱째, 루흐 알꾸두스는 지브릴을 가리킨다. “우리가 이싸를 루흐 알꾸두스(지브릴)로 강하게 해 주었다”(꾸란 2:87). 여덟째, 루하나(우리의 루흐를)는 지브릴 천사이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의 형태로 그녀 앞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루흐를 보냈다”(꾸란 19:17). 아홉째, 루히나(우리의 루흐)는 혼의 생명과 몸의 생명을 가리킨다. “우리의 루흐로부터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꾸란 21:91). 즉 루흐가 생기를 주었다는 말이다. 열째, 루히히(그의 루흐)는 생명을 가리킨다. “그의 루흐로부터 그에게 숨을 불어넣었다”(꾸란 32:9).

위와 같이 꾸란에 나오는 루흐는 지브릴 천사, (몸의, 육의, 혼의) 생명, 와히와 꾸란 등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꾸란에 루흐라는 단어는 나프스라는 단어보다 적게 나온다. 꾸란의 루흐는 알라에 의하여 창조된 것들이다. 루흐에 대한 가장 많은 의미는 생명이란 뜻이고 또 지브릴 천사(꾸란 16:102)나 꾸란(꾸란 42:52)이나 이싸를 가리킨다.<sup>14)</sup> 루흐는 명령(amr)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고 창조에 의해서 는 물질적인 몸이 생겨난다고 했다.<sup>15)</sup> 또 꾸란 41:12에서는 명령과 루흐가 같은 의미로 쓰여서 우주에서 알라가 보낸 제도와 법들을 가리킨다. 알라가 메신저들에게 내려준 와히를 루흐와 명령이라고 불렀다.<sup>16)</sup>

아랍 무슬림학자들의 루흐에 대한 의미 연구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성 꾸란’에 나오는 루흐라는 어휘가 성령으로 번역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성 꾸란’ 번역에서 ‘루흐’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잘못 번역된 구절들은 꾸란 2:87, 5:113, 2:253,4:171, 5:113, 16:2, 17:85, 58:22, 21:91,66:12, 32:7-9, 15:29, 38:72<sup>17)</sup> 등이 있다. 아랍어 꾸란에 나오는 ‘루흐 알꾸두스’는 지브릴 천사인데 한국어로 번역된 성꾸란에서는 ‘루흐 알꾸두스’를 ‘성령’이라고 잘못 번역 했다(16:102, 26:193,70:4,78:38, 97:4, 19:17<sup>18)</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부 아랍 무슬림들은 ‘루흐 알꾸두스’와 ‘알루흐 알꾸두스’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지만 아랍 기독교인들은 ‘알루흐 알꾸두스’를 ‘성령’이라고 이해한다. 꾸란의 루흐 알꾸두스(지브릴 천사)는 첫 낱말에 정관사가 없고 아랍어 성경에 나오는 알루흐 알꾸두스(성령)는 첫 낱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 아랍 무슬림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Holy Spirit)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몰랐거나 루흐 알꾸두스를 영어로 그대로 직

14) Yūṣuf Mahmūd al-siddīqī, *op.cit.*, 1139-1141.

15) ‘루흐’는 깨끗함, 높음, 비밀, 설명하기 어려움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

16) Muhammad Abd al-rahim Muhammad, *op.cit.*, 589.

17)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과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7), 1312.

18) 최영길, 같은 책, 1312.

역하여 holy spirit라고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학과 이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꾸란에 나오는 루흐 알꾸두스는 지브릴 천사이고 성경에 나오는 알루흐 알꾸두스는 성령이라는 것을 잘 안다. 따라서 아랍어 꾸란에 나오는 ‘루흐 알꾸두스’를 지브릴 천사가 아닌 ‘성령’으로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다.

꾸란에 나오는 루흐에 인칭 접미 대명사가 붙은 ‘루하나(19:17)’와 ‘루히히’가 있는데 ‘루하나’ 역시 몸과 나프스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것(21:91, 66:12)이란 의미이고 ‘루히히’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32:9)<sup>19)</sup>이란 의미이다. 아흘 알하디스<sup>20)</sup>는 나프스와 루흐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일부는 이 둘이 한 가지 것을 가리킨다고 하고 다른 무슬림들은 루흐가 나프스와 다르다고 했다.

꾸란에서 나프스의 의미도 꾸란의 여러 구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미들이 다양하다.<sup>21)</sup> 첫째, 실체와 그 자체를 가리킨다. “내가 흠이 없는 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 자비를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바로 그 나프스가 그를 악으로 선동하기 때문이다(12:53)”. 둘째, 나프스는 양심과 마음이다. “당신의 나프스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모르지만 당신 혼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5:116)”. 여기서 나프스는 마음의 의미이고 다음 구절은 양심의 의미이다. “우리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의 나프스가 그에게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안다(50:16)”. 셋째, 나프스가 루흐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생명의 의미이다. “알라는 죽은 자의 나프스들을 데려간다(39:42)”. 넷째, 나프스가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사람들아. 하나의 나프스에서 너희들을 창조한 너희들의 주를 생각하라(5:1)”. 아담의 나프스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다. 다섯째, 나프스는 종족이나 부족을 가리킨다. “한 메신저가 너희들 자신에서 너희에게 왔다”(9:128). 너희들 자신이란 말은 너희들과 같은 아랍 꾸라이쉬 종족에서 왔다는 말이다. 여섯째, 나프스는 선과 악을 가리키는 의미이다. “지옥은 주님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고향이고 저급한 욕망으로부터 나프스를 억누르는 자는 극락이 고향이다”(79:39-41). 여기서 나프스는 욕망을 쫓는 나프스이다. 따라서 나프스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의미로 국한되지 않고 모든 활동과 동기를 그리고 감정들, 이해, 사고와 인식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sup>22)</sup> 이처럼 꾸란의 루흐가 생명, 지브릴, 꾸란, 이싸 등의 의미들을

19) Muhammad Abd al-rahim Muhammad, *op.cit.*, 518ff.

20) 아흘 알하디스는 무함마드의 하디스들을 구전해 주는 전승자, 전달자이고 리잘 알하디스 또는 아쓰합 알하디스라고도 한다. 아흘 알순나(와 알자마야)는 순나를 지키고 무슬림대중을 따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순나 파라고 하고 아흘 알순나의 신학파는 알아쉬아리 파가 있고 법학파는 한발리, 하나피, 샤피이, 말리키 파들이 있다.

21) Yūsuf Mahmūd al-siddiqi, *op.cit.*, 1135-1139.



나타내고 나프스는 마음과 양심, 실체, 종족이나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루흐를 오직 spirit만으로 그리고 나프스를 오직 soul만으로 번역할 수 없다.

## 2. 이슬람 철학에서 나프스

무슬림들은 인간은 몸과 나프스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몸에 의하여 움직이고 느끼고 나프스에 의하여 깨닫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미워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루흐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슬람 신학자와 철학자간에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없다. 초기 변증신학자들은 나프스와 루흐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했으나 나프스, 루흐, 생명에 대한 견해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븐 시나는 한번은 나프스를 한번은 루흐를 사용했다.<sup>22)</sup> 이븐 시나는 나프스를 식물적인 나프스, 동물적인 나프스, 인간적인 나프스로 나누었다.<sup>24)</sup> 그런데 이븐 루쉬드는 나프스를 식물의 나프스, 감각의 나프스, 상상의 나프스, 이성적인 나프스, 열망의 나프스로 나누고 이성적인 나프스는 이론적인 능력(이론적 이성)과 행동하는 능력(실천적 이성)으로 나누었다. 그는 실천적 이성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했고 행동과 관련된 의미들을 깨닫고 이론적인 이성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깨닫는다<sup>25)</sup>고 했다. 이슬람 철학자 이븐 시나는 어떤 경우에는 나프스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루흐를 사용했다. 이븐 루쉬드는 인간의 개인 나프스(soul)는 몸이 죽거나 사라질 때 죽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도 계속 존재하는 실체이다. 몸이 죽을 때 나프스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몸이 존재하기 위하여 몸이 요구하는 것이 나프스이다. 이븐 루쉬드는 몸이 죽을 때 나프스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 예로 들었다. “나이든 사람이 시력이 약한 것은 시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력과 관련된 기관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다”. 이븐 루쉬드는 살아있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나프스라고 했다. 그런데 플라톤과 이븐 시나는 인간은 몸과 나프스의 복합체가 아니라고 했고 나프스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완전하므로 본질적으로 나프스가 곧

22) Yūsuf Mahmūd al-siddīqī, *op.cit.*, 1138.

23) Yūsuf Mahmūd al-siddīqī, *op.cit.*, 1135.

24) Muhammad ‘Abd al-ghani Shamah, “al-nafs,” *Mawsū‘ah al-falsafah al-islāmiyyah* (Cairo: wizārah al-awqāf, 2010), 986.

25) Ghaydan al-sayyid Ali, “Soul and Reason in the physical and Theological Philosophy of Ibn Bajah and Ibn Roshd,” (Cairo University, 2005), 185, 190.

인간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 안에 있는 나프스로 식별되는데 마치 항해하는 사람과 배와의 관계와 같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나프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나프스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슬람 철학자 이븐 바자(Ibn bajjah) 역시 나프스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프스를 아는 것을 다른 모든 학문과 지식의 첫 번째 등급에 놓았다.<sup>26)</sup> 이븐 바자는 나프스는 살아있는 존재가 갖는 생명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였고 나프스를 식물적인(생존케하는) 나프스, 동물적인(오감적인) 나프스, 인간적인(사고하는 능력) 나프스<sup>27)</sup>로 구별하였다. 이븐 바자는 인간의 나프스만이 갖는 ‘나띠까 능력’(Quwā nātiqah, reasonable power)은 사고하는 능력을 가리킨다<sup>28)</sup>고 했고 식물적인 나프스는 인간의 본질을 보존하고 나프스의 본질을 완성하며 종의 존속과 관련된다고 했다. ‘나띠까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인데 이븐 바자는 ‘나띠까’ 능력을 이론적인 능력(이론적인 이성)과 실천적인 능력(실천적인 이성)으로 나누었다.<sup>29)</sup> 다시 말하면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인간만이 갖는 나프스는 사고하는 능력 즉 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븐 바자와 이븐 루쉬드의 나프스(soul)와 아끌(reason)에 대한 사상은 그들의 철학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븐 바자와 이븐 루쉬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슬람 세계에 전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더 깊이 사색하고 더 넓게 설명을 했다. 이븐 바자의 사상은 이븐 루쉬드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븐 바자의 나프스(soul)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의 역사에서 큰 가치를 지니는데 그의 나프스에 대한 책은 알파라비와 이븐 루쉬드 사이의 빈 공백을 채워주었고 이븐 루쉬드의 대부분의 저서들이 이븐 바자의 저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sup>30)</sup>

26) Ghaydan al-Sayyid Ali Abd al-Majid, “Soul and Reason in the Physical and Theological Philosophy of Ibn Bajjah and Ibn Roshd”, (Cairo University, 2005), 7.

27) 플라톤과 그리스인들은 영혼들이 이동된다고 가르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은 혼(soul)의 형식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혼soul은 몸의 실체actuality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혼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자양분이 있는 혼, 감각적인 혼, 이성적인 혼이다.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 사항인 자양분이 있는 혼을 갖는다. 피조물에게 자양분을 주는 능력(성장-쇠약- 재생산)이다. 동물은 추가로 감각적인 혼을 갖는데 감각-인지(기쁨- 고통- 욕망)를 가리킨다. 그런데 인간은 자양분을 주는 혼과 감각적인 혼에 더 추가하여 생각을 위한 기능인 이성(intellect)을 갖는다.

28) Ghaydan al-Sayyid Ali Abd al-Majid, *op.cit.*, 13.

29) Ghaydan al-Sayyid Ali Abd al-Majid, *op.cit.*, 190.

30) Ghaydan al-Sayyid Ali Abd al-Majid, *op.cit.*, 210.

이븐 바자와 이븐 루쉬드는 나프스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른 학문들을 아는 데 그 조건으로서 나프스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븐 바자는 아랍의 마그립 지역(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서쪽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전해주는데 노력한 첫 번째 이슬람 철학자이자 안달루스 국가(현 스페인 남부 지역)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전한 첫 번째 이슬람 철학자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나프스에 대한 책을 설명하고 당시 그 지역의 사상가들의 사고와 근접시키고자 힘썼다. 이성주의자 이븐 루쉬드는 이븐 바자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해설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디스 전달자(아흐 알하디스)들 중 대부분은 나프스와 루흐가 같다고 하고 일부는 서로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몸과 연관되면 나프스라고 했고 몸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대부분 루흐라고 했다.<sup>31)</sup> 사실 이슬람에서 루흐와 나프스 간의 연구는 현대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무슬림들이 논의해 온 주제이다. 그래서 나프스와 인간의 루흐에 대하여 그리스 철학, 인도와 유럽의 철학 그리고 이슬람 철학자들을 찾아보곤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나프스와 루흐에 대하여 한 가지로 통일된 견해가 없었다. 그 이유는 나프스와 루흐를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니의 수피, 철학자의 수피 그리고 이슬람 신학자와 이슬람 철학자들이 루흐와 나프스에 대하여 각각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슬람철학자 알가잘리(1111년 사망)는 나프스, 깔브(마음), 루흐, 아끌(이성, 지력)을 모두 동의어라고 했다.<sup>32)</sup> 이슬람 철학자들은 나프스를 개인의 본질을 나타내고 루흐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아랍의 철학자 꾸스마븐 루까Qusta ibn Luqa (820-912)는 루흐는 몸이 있고 나프스는 몸이 없다고 했다. 아랍인들에게 루흐는 몸의 생명의 근거 그리고 몸이 느끼고 움직이는 것의 근거라고 한다.<sup>33)</sup> 이슬람 사상가들과 법학자들이 나프스와 루흐가 동의어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번역할 때 나프스를 루흐로 번역한 것이 꾸란을 주석할 때 주석가들이 루흐<sup>34)</sup>를 나프스의 의미로 설명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했다. 아흐마드 샤우끼 이브라힘은 인간 자체는 나프스, 아끌(이성), 루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

31) Yūṣuf Mahmūd al-siddīqī, *op.cit.*, 1141-1142.

32) Ahmad Shawqī Ibrahim, *al-rūh wa al-nafs wa al-aql wa al-qarīn* (Cairo: dar al-nahdah, 2013), 141.

33) Yūṣuf Mahmūd al-siddīqī, *op.cit.*, 1136.

34) Muhammad ‘Abd al-ghani Shamah, *op.cit.*, 986.

다. 현대에 와서 이집트의 무함마드 알샤오라위는 루흐와 나프스가 동의어인데 루흐가 생기를 주기 전에는 나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루흐가 몸과 만나면서 나프스가 생겼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루흐와 나프스 간의 관계는 무슬림들마다 어떻게 다른가?

첫째, 이슬람 학자들은 꾸란에서 생명과 죽음은 나프스와 관련짓고 명령과 제도는 루흐와 관련시키거나 또는 꾸란에서 나프스는 인간 그 자체, 마음, 양심, 루흐를 가리키고 루흐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나프스와 루흐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꾸란에서 나프스와 루흐가 서로 같은 의미라고 했다.<sup>35)</sup>

둘째, 대부분의 아흘 알하디스(하디스 전승자)는 나프스와 루흐는 한 가지라고 했으나 일부 아흘 알하디스는 루흐는 나프스가 아니라고 했다. 인간은 나프스, 루흐,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잠을 자면 이성을 포함한 나프스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나프스가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광선을 갖는 연결된 줄처럼 밖으로 나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에 루흐와 생명은 몸에 붙어 있어서 숨을 쉬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꾸란 주석가 이븐 압바스는 인간에게 루흐와 나프스가 있고 이 둘 사이에는 태양의 광선 같은 것이 있어서 나프스에는 이성과 변별력이 있고 루흐에는 호흡과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면 알라는 나프스를 잡아채가지만 루흐는 잡아채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꾸란 주석가 알자마크샤리는 알라가 죽음과 잠은 나프스와 연결지어 놓았다<sup>36)</sup>고 했다.

셋째, 이븐 알카임은 루흐와 나프스는 한 가지 의미라고 했다. 이 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고 한 것이다. 이슬람 철학자 알가잘리는 나프스의 일반적인 의미는 인간에게 존재하는 본질(jawhar)이고 이 본질을 철학자들이 이성이 있는 나프스(nafs nāṭiqah, reasonable Nafs)라고 했고 꾸란은 이 본질을 나프스 무뜨마인나와 나프스 암마라라고 하였고 수피들은 본질을 마음(칼브)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프스와 루흐의 실체는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한다. 이 두 단어가 어느 특정한 입장을 가지면 의미가 달라지는데 몸에 연결되면 나프스라고 부르고 몸과 상관없을 경우에는 그 고상함과 높음을 고려하여 루흐라고 불렀다<sup>37)</sup>고 한다.

넷째, 아랍어 사전에서 나프스는 루흐이고 인간 전체라고 하였다. 철학 사전에는 루흐에는 나프스의 생명이 있는데 루흐는 몸에서 생명의 원리이고 인간과의

35) Al-sayyid sābiq, *op.cit.*, 204.

36) Yūsuf Mahmūd al-siddīqī, *op.cit.*, 1141.

37) Yūsuf Mahmūd al-siddīqī, *op.cit.*, p.1142

통로에서 계속적으로 바뀌는 바람이라고 하면서 나프스와 루흐를 구분했다.

다섯째, 인간의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연구가 이슬람 사상에서 서로 분리되는 요인이 되었는데 그 예로 수피즘에서 순니 파의 수피즘과 철학자들의 수피즘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슬람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견해들이 달랐다. 예를 들면 순니파(아흘 알순나)의 수피즘에서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연구의 방식과 요인들은 철학자들의 수피즘에서 이것들을 연구하는 방식과 요인이 달랐다. 무타칼리문(변증 신학자)도 다른 신학자들과 루흐와 나프스 연구에서 서로 달랐다. 초기 이슬람 신학자들은 이론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고 신학과들이 많아지면서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연구도 달라졌다. 그래서 알무우타질라 파와 알아쉬아리 파간의 나프스, 루흐, 생명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달랐다. 초기 신학자들은 나프스를 물질로 혹은 물질과 상관없는 본질로 혹은 본질에 우연히 생긴 여러 非본질들 중의 한 가지 非본질로 생각했다. 일부 알무우타질라파는 몸과 독립적인 본질로서 나프스의 존재를 부인하고 나프스와 몸은 한 가지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곧 인간이라고 했다. 알무우타질라 파의 알니잠에게 루흐는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없는(라피프) 나프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나프스와 루흐는 한 가지 의미였다. 알아쉬아리 파는 이론적으로는 이들이 모두 한 가지 견해를 가졌는데 인간의 나프스는 본질에게 나타나는 여러 非본질들 중의 한 가지 非본질이라고 했다. 알바킬라니는 루흐는 非본질이고 생명이라고 했고 그는 인간을 본질, 非본질, 몸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아랍 무슬림들은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견해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리스 철학에서는 물론 이슬람 철학자, 변증신학자, 수피들과 현대 사상가들이 나프스와 루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프스와 루흐의 개념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무슬림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영과 혼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몸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을 갖고 있고 혼(soul)은 다양한 감정들과 욕구들의 자리(창세기 42:21, 신명기 12:15)이다. 非물질적인 영이 물질적인 몸에 들어가 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sup>38)</sup> 그래서 사람이 육적으로 죽으면 인간의 영과 몸이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으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혼은 인간의 중심적인 부분이고 혼과 함께 인격(personality)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타난다. 혼은 마음(heart, 또는 감정)과 지적 영역(mind)과 의지(will)를 소유한다. 혼이 갖는 서로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죄를 짓

38) Herbert Lockyer, *All the Doctrine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4), 144.

기도 한다. 나의 혼은 나 자신이다. 혼 안에 있는 지적 영역은 지식과 지성(intelligence)의 근거이고(고전 2:11) 지적영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동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다. 마음은 사랑, 애정, 의식의 근거(히10:22)이다. 그리고 의지는 인간에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준다. 인간의 영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살아나서(롬 8:10) 사람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요 4:24). 인간의 영 안에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친교를 위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영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했다.<sup>39)</sup> 성경에서 마음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그리고 영적인 자리이다. 이 마음 안에 감정, 생각, 욕망(눅 24:38) 등이 있다. 마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내적 장소로 사용된다(계 17:17). 마음(heart)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다. 육체적 그리고 심적인 면에서 생명의 자리이고 일부 구절에서만 가슴을 가리키고 나머지 성경 구절에서는 모두 내적 인간(inner man)을 가리킨다. 마음은 지, 정, 의의 생활과 영적 생활의 중심지이다. 성경에서 양심은 인간이 옳다고 믿는 것은 행하고 옳지 않다고 믿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증언자이다. 옳고 그른 것을 누군가 잘못 알려주었으면 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도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양심은 신약에만 나타나고 구약에서는 양심이란 단어 대신에 마음이 사용되었다. 지적 영역(mind)은 양심처럼 신약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구약에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지적 영역 대신에 사용되었다. 지적 영역은 지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루호를 통하여 알라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꾸란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기독교인들은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여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있다.

#### IV. 이슬람 철학자의 이성

무슬림들은 알라를 이성(아끌)으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구성요소가 몸, 나프스 또는 이성이라고 했다. 아끌은 여러 가지 영역에 사용되지만 특히 이슬람 철학 사상에 사용되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슬람 변증신학, 이슬람 철학, 수피즘에서 다루어왔다. 아랍어 사전에서 아끌(aql)은 연결, 제한, 묶음, 보존, 억제 등의 의미를 갖는데 요구된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슬람에서 이성

39) Herbert Lockyer, *op.cit.*, 145.

이 몸의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의견들이 각각 다르다.

무슬림들은 이성은 문제의 사실을 알도록 알라가 인간에게 강하게 해준 은택이고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게 해 준다고 한다. 문제의 사실이나 본질을 인식할 수 없다면 그것이 표현된 행동이나 동작으로 그것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이성이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이성의 비중이 있거나 아예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무슬림 철학자들은 이성을 본능적인(선천성) 이성과 습득된(후천성) 이성으로 나눈다. 본능적인 이성은 필요불가결한 개념을 아는 것이고 나프스가 이론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론적인 이성’이라고도 부른다. 습득된 이성은 이론적인 것들을 습득한 결과로 생긴 것이고 ‘실천적인 이성’으로 불린다.<sup>40)</sup> 본능적인 이성은 알라가 창조한 것이고 습득된 이성은 이 본능적인 이성이 자라난 것이다. 이 둘이 합쳐지면 이 둘의 각자가 그 소유주를 더 강하게 해 준다. 이성을 잃은 자는 미친 사람이므로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법적 판단을 못하고 상과 벌을 구분하지 못한다. 본능적인 이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하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습득된 이성은 칭찬과 비난을 하는 곳이고 칭찬과 비난은 습득된 이성의 영향에 따른다. 꾸란의 모든 구절에서 알라는 카피르(무함마드가 가져온 교리를 믿지 않는 자)가 이성이 없다는 것을 비난했는데 여기서 이성은 본능적인 이성이 아니라 습득된 이성을 가리킨다. 결국 무슬림들은 이성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그리고 이성을 통하여 그를 이롭게 하는 것과 해롭게 하는 것을 구별해준다고 한다.

꾸란에서는 어느 구절도 이성(아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다만 이성이란 단어의 파생어들과 이성의 기능과 역할만 언급한다. 꾸란에서 마음(깔브)은 이성과 관련된 개념(꾸란 22:46; 50:37)이다.<sup>41)</sup> 그런데 꾸란 50:37에서 깔브는 이성(아끌)으로 해석한다. 아끌은 마음(깔브)의 여러 능력들 중의 한 가지 능력이다. 여기서 깔브는 심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깔브는 가장 깊은 사고와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빙성 있는 장소로서 알라가 인간에게 마음을 만들어 주었고 육안과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라띠프(latif)<sup>42)</sup>이다. 꾸란에서 이성(아끌)의 동의어들은 인간이 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변별의 기능들 중의 한 가지를 가리킨다. 아끌이 완전해지면 이 세상에서 존재의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40) Ibrahim Muhammad Turki, “al-‘Aql,” *Mawsū‘ah al-falsafah al-Isla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2010), 712-713.

41) Ibrahim Muhammad Turki, *op.cit.*, 713.

42) 라띠프는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예민하고 섬세한 것이고 육안으로 볼 수 없어서 포착하기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Qāmūs al-alfādh al-islāmiyyah, al-yamamah, (1995), 376).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인식력은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의지한다. 이런 감각들은 이성을 돕고 이들 감각들은 이 세상에서 느끼고 보는 것들을 아는데 도움을 주지만 이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한다. 본능적인 이성은 이성적인 능력으로 불리는데 본능적인 이성은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식을 갖고 말이 조화롭고 행함이 바른 것이다. 마음의 깨끗함은 이성의 빛으로 생겨난다(꾸란 10:100: 6:125).

꾸란에서 아랍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랍은 말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꾸란 12:2에서 아랍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했다. 둘째, 아랍은 말에서 모순이 없다. 꾸란 3:25에서 이브라힘이 유대교인 혹은 기독교인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전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위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셋째, 아랍은 증거들을 이해한다는 뜻이다(꾸란 10:16). 넷째, 아랍은 말이 행함과 일치한다는 뜻이다(꾸란 2:44). 다섯째, 아랍은 물질적인 것이든지 非물질적인 것이든지 유익한 것은 택하고 해로운 것은 버린다는 것이다(꾸란 21:10). 여섯째, 아랍은 나중에 더 큰 유익을 위하여 급하고 작은 이익을 희생한다는 뜻이다(꾸란 28:60). 일곱째, 아랍은 사건들로부터 옳은 충고를 얻는다(꾸란 29:35). 여덟째, 아랍은 우주적인 징표의 의미들을 아는 것이다(꾸란 16:12). 아홉째, 아랍은 사람들 특히 예언자들을 잘 대하는 것이다(꾸란 49:4).

꾸란의 아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무타칼리문(이슬람 변증 신학자)의 논의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성에 대한 그리스 철학의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스 철학은 형이상학적(metaphysics), 인식론적(epistemology), 윤리적인(ethics) 면에서 이성(intellect)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스인들에게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이성은 우주를 감독하는 이성적인 힘의 존재를 말하고 모든 질서와 제도의 원천이다. 헤라클레투스(heraclitus)는 우주를 이성(로고스)과 관련지었다. 아낙사고라스(Anaxagoras, 기원전 500년 출생)는 누스(지적작용, mind)의 개념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으로 알려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 1 동인(mover)은 이성이었다.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적인 이성의 형이상학적 관념은 이슬람 철학자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슬람 철학에 영향을 준 그리스 철학의 이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관념은 204년 이집트에서 태어난 플로티누스(plotinus, 270년 사망)의 견해였다. 그는 제1이성이 하나의 신으로부터 유출되는 첫 번째 것이라고 했다.<sup>43)</sup>

두 번째 그리스 철학에서 이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념은 헤라클레토스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에 대하여 그리

43) Ibrahim Muhammad Turki, *op.cit.*, 717.



스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다. 그는 인간에 있는 사고하는 능력(quwa nātiqah)을 이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슬람 철학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 철학자들 중 소요학파는 이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연구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에 대한 견해는 사실상 이슬람 철학자들의 이성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 그리스 철학에서 이성에 대한 윤리적인 관념은 이성이 윤리적인 책무의 원천이고 미덕으로 인도해주고 미덕을 실천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했다. 사실 플로티누스는 이성이 인간의 욕망과 분노의 반항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소요학파는 최고의 행복은 자연에 따라서 혹은 이성(로고스)에 따라서 살 때 실현된다고 했다. 그들은 자연은 온전한 이성을 따르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따라 살면 그는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이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했다. 이성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소요학파의 사상은 이슬람 사상에는 안 나타나고 그 대신 플라톤의 이성에 대한 견해가 이슬람 사상에 나타난다. 플라톤은 이성이 욕망과 분노의 반항을 제어하는 힘을 이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의 일부 소요학파 철학자들에게 나타난다.

온전한 살라피 무슬림들은 이성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 이성을 막지 않았으나 인간 이성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인간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살라피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신의 본질과 루흐처럼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이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sup>44)</sup>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본질과 루흐 등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사실들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했고 와히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행함에 있어서 좋고 나쁜 천성을 아는 것은 이성으로 가능하나 자세하고 세밀한 것의 원천은 와히라고 했다. 알라는 피뜨라(Fitrah)에게 말하므로 알라가 인간에게 내려준 입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피뜨라는 알라가 인간에게 창조해준 천성 혹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데 이슬람 교리에서는 그 천성은 이슬람이라고 하고 인간은 피뜨라에 의하여 그의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sup>45)</sup> 살라피들은 이성의 가치를 사람이 인식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성의 가치는 율법과 일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무으타질라는 이슬람 사상에서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 알무으타질라는 이성은 감각을 뛰어넘는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윤리적인 사실들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일부 알무으타질라의 학자들은 이

44) Ibrahim Muhammad Turki, *op.cit.*, 719.

45) Mahmūd mazrū'h, "al-fitrah," *Mawsū'ah al-'aqīdah al-islā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2010), 898.

성은 지식(ilm)을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인간이 자신과 나머지 사물들 간을 구분해 주는 능력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성으로만 인간이 알라를 알 수 있기 때문에<sup>46)</sup> 이성은 신적 라피프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알무오타질라는 이성(아끌)이 종교적 텍스트(나끌)보다 선행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종교적 텍스트의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텍스트의 적법 여부는 이성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텍스트의 의미가 이성이 허용하는 것과 합치되도록 해석한다. 그러나 알아쉬아리 파는 이성의 권한을 제한한다. 알아쉬아리 파는 만일 이성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면 이성이 종교를 돕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 교리의 원리는 종교적 텍스트들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래서 신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는데 이성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알아쉬아리 파는 인간의 이성은 신적인 사실들을 인식할 수 없다고 했다. 순니 수피즘과 알아쉬아리 파가 서로 제휴한 다음에 한동안 대다수 이슬람 세계에 유행했다. 과거 이슬람 역사에서 한동안 무슬림 대중들이 이성적인 측면에 무관심한 것은 이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47)</sup>

이브라힘 무함마드 투르키는 이성에 대한 알무오타질라 파의 개념과 그 기능이 이성에 대한 꾸란 개념에 더 가깝다고 했다. 알무오타질라 파는 온건한 살라피보다 이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더욱 대담하게 말했다. 이성에 대한 꾸란의 개념은 이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보다는 이성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더 관심을 가졌다. 현대 이슬람 사상은 앞서 말한 이슬람 역사 속에서 보여준 무슬림들의 부정적인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슬람의 이성이란 개념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등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 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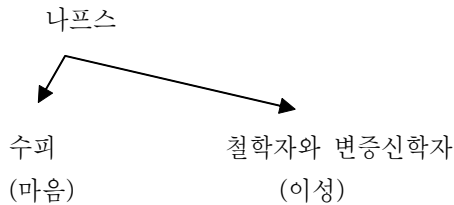
아랍인들에게 루흐는 자주 나프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루흐와 나프스에 간의 분명한 차이가 없고 두 어휘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꾸란에서는 루흐의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란 해석학에

46) Ibrahim Muhammad Turki, *op.cit.*, 721.

47) Ibrahim Muhammad Turki, *op.cit.*, 724.

따라서 루흐의 의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꾸란에서 나프스의 의미, 아랍어 사전에서의 루흐와 나프스의 의미, 철학 사전에서 루흐와 나프스의 의미. 변증신학자들의 루흐와 나프스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 무슬림들은 대부분의 경우 몸과 연관되면 나프스라고 했고 몸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대부분 루흐라고 했다. 사실 이슬람에서 루흐와 나프스 간의 연구는 현대 사상가들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무슬림들이 논의해 온 주제이다.

수피 사전에서 마음(Qalb)은 루흐와 나프스 사이의 중간에 있는 빛을 내는 본질이라고 말하였다. 또 수피들은 알라가 마음을 통하여 인간을 볼 수 있는 존재의 핵심 속에 내려준 매우 비밀스런 곳이고 영원한 빛이라고 했다. 이슬람 철학자 이븐 시나는 나프스를 아는 것이 신을 아는 것으로 인도해준다고 생각했다. 또 이븐 바자와 이븐 루쉬드도 나프스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이슬람 철학자들은 물론 수피들도 나프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슬람철학자 알가잘리(1111년 사망)는 나프스, 칼브(마음), 루흐, 아끌(이성, 지력)을 모두 동의어라고 했다. 이슬람 철학자들은 나프스를 개인의 본질을 나타내고 루흐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슬람 철학자들은 꾸란의 일부 구절(50:37)에 나오는 마음(칼브)을 이성으로 해석했다. 꾸란에 나오는 루흐의 의미들은 이슬람 학자들이 거의 동일한 해석을 했는데 아쉽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에 나오는 루흐라는 어휘를 성령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여러 경우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첫째는 꾸란에 나오는 어휘가 21세가 아랍 무슬림들이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에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경우이다. 둘째는 꾸란의 언어적 의미가 아닌 꾸란 주석가들의 성향에 따라 특정 어휘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수피들은 꾸란 표면에 나타난 의미가 아닌 숨은 의미를 찾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꾸란에 나오는 어휘들이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넷째는 수피들마저도 수피 종단에 따라 특정 어휘가 다른 종단과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된다. 다섯째

는 현대 문학적 아랍어(현대 푸스하)는 아랍 각국의 대중아랍어(암미야)와 어휘가 동일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집트의 경우, 현대 문학적 아랍어가 대중아랍어와 너무 차이가 나서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과 문맹 간의 언어적 이해의 폭이 다르다. 더구나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어휘들과 수피들이 규정한 의미들은 문맹이 많은 이집트에서 무슬림들이 그 의미의 차이를 금방 깨닫지 못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어휘들인 나프스, 루흐, 아끌, 깔브 등이 철학과 수피즘, 이슬람 변증 신학, 꾸란 해석학, 아랍어 사전, 꾸란 어휘 사전 등에 따라 그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학문 영역에 따라 그 전문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제어: 변증신학자, 숨은 의미, 이슬람 철학, 순니, 수피, 이성적인 나프스, 루흐, 아끌(이성), 깔브(마음)

원고접수일: 2015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15일

## 참고문헌

- 공일주. 『한국인과 소통을 위한 아랍 문화』. 서울: 세창출판사, 2012.
- \_\_\_\_\_. 『이슬람의 수피즘과 수쿠크』. 서울: CLC, 2011.
- \_\_\_\_\_. “언어와 해석학적 관점에서 꾸란의 아랍어 의미와 해석.” 《아랍과 이슬람 세계》 1(1), 2014.
- 최영길.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1997.
- Abi Khuzam Anwar F. *A Dictionary of Sufism Terminology*. Librairie Du Liban Publishers, 1993.
- Ali Ghaydan al-sayyid. “Soul and Reason in the physical and Theological Philosophy of Ibn Bajah and Ibn Roshd.” Cairo University, 2005
- Campanini Massimi. *The Qur'an, Modern Muslim Interpretation*. London: Routledge, 2011.
- Haleem M,A,S, Abdel. *The Qur'a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Ibrahim Ahmad Shawqi. *al-rūh wa al-nafs wa al-aql wa al-qarin*. Cairo: dar al-nahdah, 2013.
- al-Kāshānī ‘Abd al-Razāq. *Mu‘jam Istilāhāt al-sūfiyyah*. Cairo: Dār al-manār, 1992.
- Lockyer Herbert. *All the Doctrines of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64.
- Mazrū‘h Mahmūd. “*al-fitrah*,” *Mawsū‘ah al-aqidah al-isla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2010.
- Mu‘jam. *alfāZ al-Qur‘ān al-karīm, Part 1*, Cairo: Majma’ al-lughah al-arabiyyah, 1989.
- Muhammad Magdi Ibrahim. *Buhūth fi Ilm al-Dilālah bayna al-qadamā’ wa al-Muhdathīn*. Cairo: al-hai’ah al-misriyyah al-Ammah lilkitab, 2012.
- Muhammad Abd al-rahim Muhammad. “*Al-rūh*.” *Mawsū‘ah al-falsafah al-isla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2010.
- Sābiq Al-sayyid. *al-‘aqā’id al-islāmiyyah. al-fath lil-i‘lām al-Arabi*. Cairo, 2009.
- Shamah Muhammad ‘Abd al-ghani. “*al-nafs*.” *Mawsū‘ah al-falsafah*

*al-islamiyyah*. Cairo: wizārah al-awqāf, 2010.

al-siddiqi Yūsuf Mahmūd. “al-nafs wa al-rūh.” *Mawsū‘ah al-Aqidah al-isla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2010.

Tahir Hamid. *Ma‘ālim al-Tasawwuf al-Islāmi*. Cairo: Nahdah Misr, 2010.

Turki Ibrahim Muhammad. “al-‘Aql.” *Mawsū‘ah al-falsafah al-Islamiyyah*. Cairo: al-Majlis al-‘a’lā lil-shu‘ūn al-islāmiyyah, 2010,

Abstract

## A Semantic Exploration of Nafs, rūḥ, ‘Aql and Qalb in the Qur’ān

Dr. IL Joo Kong(Visiting Professor, Cairo University)

For Arabs, rūḥ is often used in similar meaning as Nafs. The general concept of rūḥ and Nafs seems to be indistinguishable and they are used as synonyms. In the Qur’ān, the characteristics of rūḥ is not mentioned such that the meaning of rūḥ can only be determined by looking at the Qur’ān Hermeneutics. Thus,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se words, one should look up series of different materials that contains the meaning of these words such as the Arabic dictionary, philosophical dictionary and mutakallimun’s explanations. In fact, rūḥ and Nafs of Islam have long been disputed among Modern theorists and other Muslims over centuries in Muslim society. The dictionary of Sufism mentions that Qalb (heart) is the essence that shines in between rūḥ and Nafs and also it is explained as ‘Reasonable Nafs’. Sufis emphasized the ‘heart,’ but philosophers and mutakallimun(masters of al-kalām) focused more on intellect rather than Nafs. Islamic philosopher Al-Ghazālī (Died in A.D. 1111) argued that Nafs, Qalb, rūḥ, Aql (intellect) are all synonyms in meaning. Some Islamic philosophers interpreted Qalb as intellect. Korean-translated version of the Qur’ān translated ‘rūḥ’ or ‘rūḥ al-Qudus’ as Holy Spirit, but these words do not appear in any of the studies of the Arabic Qur’ān nor Islamic word studies. The reason behind this incorrect-translation may be derived from many different circumstances. First, the language that is used in Qur’ān could be different from the Arabic language we use today. Second, the lexical meaning of Qur’an can vary depending on different Qur’ān commentators and interpretation. For

Sufi, they interpret the Qur'ān not by the external sense of the Quran but by the hidden meaning (inner meaning) underneath the surface of the Qur'ān. Third, the vocabularies that show up in the Qur'ān differ in meaning depending on the context. Fourth, depending on different Sufi orders, the meaning of specific vocabularies in various Sufi orders may vary such that further studies on these advanced vocabularies are required. Lastly, the modern Fusha(Modern standard Arabic) may have different meaning when the same vocabularies are used in Ammiyyah(colloquial Arabic). For Egypt, the language between Fusha and Ammiyyah has an immense gap such that the understandings of different classes of societ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one is educated or not. Hence, it is even harder for Egyptian illiterates to distinguish vocabularies that have philosophical meanings or that are created by Sufi. Vocabularies such as Nafs, rūḥ, 'Aql, and Qalb, that are discussed in this paper have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philosophy, Sufism, ilm al-kalam, hermeneutics, Arabic dictionary or Qur'an vocabulary dictionary and thus it is important to confirm the meaning of these advanced vocabularies depending on its field of study.

Key Words: Mutakallimun, hidden meaning, Islamic philosophy, Sunni, Sufi, Reasonable Nafs, rūḥ, 'Aql, Qalb